

# 사람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감로이슬

구세주라는 사람은 시시한 능력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적암유록 출장론에 쓰여 있어요. 정도령은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한다. 그 정도령은 구세주요, 정도령이요 생미복불이라고 쓰여 있어요. 정도령이라는 사람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신(神)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이면 태풍을 막을 수 있어요? 공산주의를 없앨 수 있어요? 여름 장맛비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풍년들게 할 수 있어요? 전쟁 못 일어나게 막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신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에게 영생을 줄 사람이라는 걸 이걸 100% 확신을 못하는 자는 그건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가 지옥 가는 거지, 똑똑한 사람은 안 가요.

###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어요. 면할면(免)자, 장례 장(葬)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몰라서 죽는 거지, 알면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라는 의식이 선악과요, 나라는 의식이 죄 중에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죽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면서 어떻게 나라는 것이 사기는 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알면서 내가 사기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이를 악물고 나라는 의식이 사기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반대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 생활을 하라고 하기도 전에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저절로 반대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못하는 자는 바보예요. 바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고요. 한복을 3장 5절에 쓰여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 나라는 의식이 있는 한,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구

원이자 사람으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귀 종인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 고로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사람은 꼭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죽지 않는 명약인 감로이슬성신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른다면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항상 감사를 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보탬이 되도록 모든 것을 기울여 바쳐도 못 갚아요, 평생 동안 살게 해주는 것도 구세주요? 구세주의 분신이 사람의 생명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세주의 분신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남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지켜 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 해주면서 살려주고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감사로써 끝날 일이에요. 감사를 백 번, 천 번 해도 그 은혜를 못 갚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충성을 해서 공로를 세우고 또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는 물건 값을 지불해줘야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건 우주덩어리만한 금덩어리 갖다가 쥐고 맞바꿀 수가 없어. 나의 모든 전체를 다 바쳐도 있는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기울여도 맞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기울여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다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된 것을 가지고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마귀가 거짓말로 모든 인간들을 속였는데 그 속인 사실을 들춰내 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 마귀의 영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죠? 이



구세주 조희성님

진리의 말씀이 알려지면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우리 승리제단이 되어버려요. 이것만 알려지면 자기네 교리를 진리라고 여기지 않아요. 죄의 근본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죠? 죄의 근본이 선악과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먹은 선악과가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사실이 방송을 타고 나가면 세계 만민이 무릎을 치고 맞다고 해요. 못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는 사망의 신이요, 사망의 신이 바로 마귀인데 그게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로이슬성신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로이슬성신이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고로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으니까 전지전능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공산주의를 없앤다!’ 이것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자체를 못해요. 공산주의라는 건 하나의 인간의 이념이요, 인간의 사상이요, 인간의 마음이요.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워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분신으로 공산주의자 속에 들어가서 그 이념의 마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려요. 어찌하겠습니까? ‘공산주의 좋다!’하는 놈이 그 이튿날 ‘나

아니죠? 분명히 영생의 물질이 이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틀림없는 구세주요, 틀림없는 많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요?

### 사람 몸을 입고 온 구세주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바로 우리들을 살리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구원해내려다가,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으니까 전지전능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공산주의를 없앤다!’ 이것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자체를 못해요. 공산주의라는 건 하나의 인간의 이념이요, 인간의 사상이요, 인간의 마음이요.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워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분신으로 공산주의자 속에 들어가서 그 이념의 마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려요. 어찌하겠습니까? ‘공산주의 좋다!’하는 놈이 그 이튿날 ‘나

는 공산주의 싫다!’로 변하니 세계 공산주의가 폭삭 망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사람이야?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아서라도 틀림없이 구세주요, 틀림없이 온 인류를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틀림없이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을 만들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리면 이 소식을 하루빨리 세계만방에 알려져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 앞에 나와서 구원 얻도록 해주어야 먼저 안 사람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나 작나라하고 조리 있게 구원론을 논하죠? 생명과 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구원 얻는다,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 바로 영생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부활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

부활의 정도도 모르면서 부활론을 논하는 것은 참말로 그들은 무식한 사람이요?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이 바로 영적 말이요? 영적 말이니가 영적 부활이요? 영적 부활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생의 영으로 변하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영생의 영으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망의 영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사망의 영이 없었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때 바로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의 진의를 모르고 부활의 말을 육적인 말로 변화시켜가지고 예수의 몸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을 하면서 2천년만 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다고 그걸 믿고 휴거페들이 난리쳤던 일이 있었죠? 예수가 죽어서 땅에 묻혀 있어! 예수 시체 보여줄까? 불란서에서 시체가 들어 있는 무덤이 있어! 이 사람이 얘기를 해서 두 번 다시 말을 못

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확실한 것만 말하지 모르는 건 말 안 해요. 이 사람은 예수가 마귀 새끼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예수를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성경에 쓰여 있죠? 예베서 6장 12절 “공중권세 잡은 신이 악신이다” 공중권세 잡은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에 있는 신은 마귀 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가 요단 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갔다 올라올 때에 공중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죠? 그 당시 세례요한의 신관이 하나님은 하늘꼭대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한국 안민은 사람들도 하늘꼭대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마귀가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를 못 내리게 하고 여름장마 왜 못 지게 하냐면 그 마귀를 죽여 버려요. 마귀를 목을 졸러버리니까 자기가 죽어가는데, 비 내리게 할 수 있어? 못해. 마귀 새끼를 죽여서 없애버리니까 비가 못 내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세차게 불어오던 태풍이 부산 앞바다에서 갑자기 멈춰버려 그냥 태풍을 몰고 마귀 새끼를 목을 비틀어서 죽여 버리니까 그 바람이 울까? 금세 바람이 죽어버려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태풍 못 오게 한다고 그러지, 그런 능력도 없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지금까지 되어지는 걸 보아서 틀림없는 구세주요? 감로이슬성신이 내리는 걸 보아서 틀림없는 구세주요? 감로이슬성신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로이슬성신의 주인공이요, 주인공!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구원이야. 이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구원이 절대 안 돼.\*

2001년 11월 2일 말씀 중에서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5장 모세》



### (9) 공중권세 잡은 마귀 신이 재앙을 내리다 - ②

(지난호에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은 주 먹인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니, 사람이나 가축은 들로 나가서 말고 집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큰소리로 경고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베 자기 종과 가축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공중권세 잡은 마귀신은 하늘 기둥이 머금고 있던 쉼비구름을 열리고 열려서 열음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열음처럼 무거워진 쉼비구름은 주먹만한 우박이 되어 지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 동안에, 마귀는 번개불을 일으키는 동시에 천둥소리를 냈습니다.  
땅 위에 불덩이가 내리고 불길과 우박

### (9) 공중권세 잡은 마귀 신이 재앙을 내리다 - ②

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나라가 생긴 이래로 처음 보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들에 있던 사람, 짐승, 곡식, 나무는 죽고, 쓰러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방에만 우박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일곱 번째 재앙 : 불덩어리와 우박이 쏟아짐

그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한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빌었습니다.  
“당신네 하나님은 의롭고, 나와 나의 백성은 나쁜 마음을 가졌소. 어떻게든 나를 용서하시고 이 뇌성과 우박이 밋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오. 그렇게 하면 당신네 뜻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겠소.”  
모세는 애굽의 왕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중신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박을 내려 그들을 모조리 죽이려 하였는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의

악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먹만한 우박으로 이삭이 팬 보리와 쫄이 핀 삼이 모두 상하였습니다. 이제 마귀는 밀과 쌀보리의 이삭이 펠 때를 기다렸다. 애굽에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밀과 쌀보리의 이삭마저 모조리 갉아 먹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양식을 수확하지 못하고 결국 굶어죽게 될 것이라고 마귀는 생각한 것입니다.  
마귀의 음흉한 계획을 알아차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 바비삭이 날 때 애굽의 전역에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의 왕 투트모세 3세는 할 수 없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하기로 하고 물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 :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덮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 절기를 지키려면 그곳에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가야 합니다. 늙은이, 아들이건 딸이건 모두 가야 합니다. 소와 양떼도 다 몰고 가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손을 내저으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너희는 단 생각을 품고 있다. 가려면 남자들만 가라.” 그리고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을 내쫓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라비아반도에 있던 숲 한 메뚜기 떼가 동풍을 타고 홍해를 건너와서 애굽을 습격하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어떻게나 많은지 애굽 땅이 컴컴하게 되고, 메뚜기들은 먼뽕 우박 속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것들을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땅에는 푸른 빛을 띠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작논에 있는 바비삭만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애굽 왕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곧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당신네 하나님과 당신네에게 정말 잘

못했소. 제발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오. 이 메뚜기들이 없어지도록 한 번만 빌어 주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세찬 서풍이 불어제치더니 메뚜기 떼들이 홍해로 날려가 모조리 떨어져 고기뿔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애굽 왕은 또 모세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